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창시자_찰스 왈드하임의 강연 녹취록

Charles Waldheim

오늘 밤 우리는 찰스 왈드하임 교수의 조경학에 관한 연례 래너한 추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980년 예일 칼리지 졸업생 및 1984년 예일 건축대학 티머시 이간 래너한의 친구들 및 가족의 기부에 의해 후원되는 강의 시리즈입니다. 그의 뛰어난 경력은 1994년 그의 죽음에 의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조경학은 예일 건축대학의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래너한의 가족의 크나큰 후원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본 강의 시리즈뿐만 아니라 킴의 어머니 루이스 엠를 추모하는 목적으로 많은 재원을 제공하여 풍경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저희는 래너한 가족이 우리 학교와 학교의 교육사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밤도 많은 가족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 래너한의 강의는 시리즈의 19번째 강의입니다. 래너한의 강의를 전하신 분들 중 마리오 쉐트넘, 조지 하그리브스, 마이클 반 발켄버그, 제임스 코너, 캐서린 구스타슨, 아드리안 구스, 케이트 올프, 및 로버트 우드를 포함한 대다수는 이 분야의 영향력 있는 종사자들이셨습니다. 또한 비토 버친스키, 알렉산더 폰티, 및 미어칸트 베니쉬와 같은 사학자들과 이론가들, 그리고 엘리자베스 마이어 및 크리스티나 힐과 같이 실제 이론과 스튜디오 강의를 혼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의자이신 찰스 왈드하임 씨는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John E. Irving 학교의 조경학 교수이며 조경학부의 학장이십니다. 그의 가르침과 연구는 조경학과 현대 어바니즘의 관계를 탐구하며. 오늘 밤 강연의 주제인 조경학적 어바니즘은 조경학이 현대 도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매체로 최근 들어 사용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왈드하임 교수가 만들어 낸 단어입니다. 왈드하임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기사들과 챕터들을 집필했으며 Landscape Urbanism Reader를 편집했습니다. 조경학과 현대 어바니즘에 대한 그의 저서는 많은 저널들에 인용되었으며 부패하는 도시산업경제의 사례로 디트로이트 시를 제시한 그의 뛰어난 연구는 그가 편집한 Case: Lafayette Park, 디트로이트와 조지 데쓰칼루이키스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 같군요- 및 제이슨 영과 공동 편집한 Stalking Detroit 매우 중요한 출판물들에 기록되었습니다.

왈드하임 교수는 현재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역사에 대하여 그의 첫 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서 면세점에 들리며 쇼핑을 하며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아슬아슬하게 쇼핑을 마친 경험이 있지요. 이 책의 제목은 '시카고 오헤어와 자연사 및 문화사'가 될 것입니다. 플로리다대학의 졸업생인 왈드하임 교수는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건축학 석사를 이수했으며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위치하여 디자인과 현대 어바니즘 분야의 학제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도시학 에이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조경학과 어바니즘' 강의를 진행할 찰스 왈드하임 교수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환영해주십시오. 찰스, 올라와 주시죠.

밥,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친절하시군요. 다시 이곳에 돌아와 오랜 친구들과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볼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래너한 강의의 강사로 초대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강연하신 18명의 연사들은 굉장한 분들이셨습니다. 내년의 20번째 연사를 모실 때는 이 자리에 과분하지 않은 분을 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의 요란법석과 그 근원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달라고 밥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제가 하려 했던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개념에 관한 지난 10년에서 12년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이것을 이제 매우 상징적이 된 몇 가지 프로젝트와 그 외 조금 더 최근의 프로젝트와 연결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조경학 어바니즘의 -소위 말해- '성숙 단계'를 살펴 볼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경학과 어바니즘에 관한 토의와 세기 중엽의 순간들을 연결하여 조경학 어바니즘에 대한 토의와 사례에 관한 몇몇 역사적 선행사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파트 모두 조경학과 조경건축에 대한 '탄생 신화' 대해 간단히 말해봄으로써 시작해 보려 합니다. 물론 이러한 탄생 신화는 여러 개가 있으며 제가 말하려는 것이 단일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급증하는 토의와 최근의 대화들, 그리고 이들이 조경건축에 흡수되는 현상을 생각할 때, '시작'에 관해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조경 건축은 직업으로써, 그리고 하나의 지식분야로써 미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초기 문서들을 읽어 보면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 한 전문가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교육자들은 꽤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의 사회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산업도시에 대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상태를 직접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 조경 건축의 개념에 대한 조합들이 생성되고 지적 및 실질적 자본들이 축적될 때, 이 개념이 동시에 학문적 개념을 띨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에서 110년간 훈련과 직업의 관계는 도시의 상태를 다루는 개념에서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제 독자들과 동료들에게 있어 어바니즘에 비춘 조경학의 탄생은 함께 속하지 않는 것을 같이 두는 것이며, 제가 볼 때 북아메리카의 조경 건축이 탄생할 때 이는 이미 도시적이었으며 사회의 환경적 상태들을 다루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급진적인 사회적 및 정치적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1920대에 들어 도시에 대한 전념은 엄청났습니다. 이 열정은 부풀어 올라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직업 및 그리고 학문적 개념을 파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야에서 조경학에 대한 도시학적 전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최소 지난 세기부터 이 분야와 관련된 다른 지식 분야들과 다른 직업들에 도시학적 예술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조경학은 그 파생 이후 다른 지식 분야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 하버드대와 몇몇 대학에서 일어난 도시디자인 교육의 초기 계획에 관한 토의에서 도시디자인을 조경건축학부 아래 배치한 것과 같이요.

지식 분야와 전문적 근원론에 대한 내부적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에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과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기 말에 이르러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작가들과 비평가들이 조경학과 어바니즘의 관계를 다루거나 조경학을 하나의 형용사적 수사구로 다루어 사용했습니다. 그 시작과 어원학은 꽤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

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그리고 런던과 미국 동부 등지에서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경학의 잠재력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스탄 알렌은 조경학이 점점 더 어바니즘의 모델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경학은 수평면을 구조화하는 예술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알렌의 주장은 이 표면과 그 상태, 물질성, 그리고 구성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무거운 공간창출의 틀에서 빠져나와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적 효과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경학적 어바니즘의 근원에 대한 갈등의 한편에는 컨테이너와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도시, 다시 말해 건물의 집합체로써의 도시간의 주제(subject)와 목적(object)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도시성과 어바니즘을 사회적 관계, 경제적 교류 및 정보로서 정의내리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점에서 1970년대 후기와 베드포드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등장을 살펴보며 도시의 건축을 양식의 측면에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편은 문화적 측면이고 다른 한 편은 이런 막다른 골목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1981년 라발렛 공원 공모전의 출품작을 보여드리자면...이건 OMA 2위 계획의 밑그림인데요. 브라츄미 계획이나 램쿠하 계획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품작에서 츄미는 1970년대는 도시의 공식적 구조가 유형학적 및 형태학적으로 재조명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계속 발달되어간 분석은 도시의 역사에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목은 대개 계획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시에서 일어날 활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조직적 기능이나 사건들은 양식이나 스타일의 정교함만큼의 건축학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MA 출품작을 인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활동의 프로그램을 짜는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실제로 OMA 계획은 공원의 사용기간이 지나갈수록 공원의 사용목적도 바뀔 것이라는 발상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용목적의 변화는 스타일과 유형학적 체계에 관한 역사학적 질문들을 피해나가게 되지요. 이 점을 고려할 때 사회기반시설의 집합체에 대한 발상, 물체가 공간과 교류하는 상호교환성,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생기는 프로그램적 변화는 건축된 공간에 대한 문제와는 따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후의 디자이너로 훈련된 세대들의 많은 이들은 유럽 출신이었고 일부는 북아메리카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초기 단계 조경학적 어바니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웨스트 8 소속 어드리안 후스의 셸 프로젝트에 대한 작품입니다. 이 점에서 후스를 비롯해 제가 오늘 저녁 소개할 많은 조경 건축가들은 자주 연결되지 않았던 두 가지 것들은 연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OMA 라발렛 계획의 윙크이기도 했던 이 쉘 프로젝트의 직선적 특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발전한 디자인 문화 또는 엘리트 디자인 문화를 생태학적 기능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볼 때 후스는 네덜란드 국립조경학교 바게노겐 학교에서 생태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소위 말해 '세상을 구하는' 그의 일에 생태학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생태학을 대중의 볼거리로써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조개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사용했고 흑백 스트라이프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검은색이나 흰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그들의 색과 비슷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공간에 잘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자연도태를 통한 포식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스는 생태학을 특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패러다임보다는 디자인의 매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웨스트 8의 프로젝트 Buckthorn City 또한 꽤나 흥미롭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갈매나무(buckthorn) 식물을 이용해서 북해 끝의 토양과 생태공학 적용 전의 해안 간척지를 탄탄히 개발했는데요. 전례나 유형, 사용목적, 그 외의 외부적 성질들에 기초하여 도시에 배치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 생태학적 프로세스에 식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 초기 단계의 특성입니다. 웨스트 8이 계획한 스히폴 공항처럼 말이죠. 여기서는 생태학을 운용하여 자작나무, 콩, 클로버, 그리고 꿀을 사용하여 새가 비행기에 충돌하는 현상을 줄이려 하였고 동시에 미학적 및 공간적 성질을 사용하는 환경을 창조

했습니다. 다수의 초기 프로젝트가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비롯된 건 사실입니다만 북아메리카에서도 일부 초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2000-2001년 다운스뷰 공원 공모전처럼 말이죠. 여기 보여드리는 짐 코너와 스탄 앨런의 콜라보레이션과 우승을 차지한 OMA 계획 모두 특정 방식으로의 생태학의 사용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의 작업에서는 불확정성과 제약 없는 개방성에 대한 페티쉬가 있었는데요. 흥미롭게 교차하는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생태계 시스템이 부족했던 이 들판은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태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기금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생각했던 방안은 생태계의 복합성이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토론토의 생태학자 및 설계 계획자인 니나마리 리스터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처음 시기에는 앞부분에 자작나무를 어느 정도 심고 그 후 자연도태에 의해 더 복합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다양하며 생기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는 공공문화 및 예술문화의 교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 아니면 저명성이 증가하는 친환경적 의식과 관련성을 보인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 단계의 작업과 코너의 작업 등은 생태학적 설계의 계보와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생태학적 설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난 10년에서 15년간의 조경학적 어바니즘의 발달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설계 계획자 및 생태학자인 이안 맥하그의 캐리커처인데요. 과학적 지식을 생태학적을 통해 구성하고 도시 설계에 적용하려는 그의 열망은 아주 중요하고 성공적인 교육학적 및 실무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개 실패라고 평가되는데요, 1970년대에 세계 각국의 조경 설계자들과 건축가들 세대에 의해 프로그램이 시작되던 시기는 북아메리카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책을 점점 중단하고 신자유주의적 자유경쟁주의 경제 시스템을 시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GIS와 맵핑 기술의 발명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학적 데이터와 맵핑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설계 계획을 통한 작업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화의 난점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안이 지지하던 것들을 보면... 이건 스태튼 섬인데요. 맥하그와 윌러스 등의 작업을 오버레이 방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맥하그의 작품은 핵심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는 하버드의 디자인대학원을 떠난 지 3년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새 학과를 신설하여 부동산이나 골프 코스나 설계하던 갑갑한 조경 건축학과를 탈피하여 지역 설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건축학교 및 조경학 건축학교들의 교육학적 구성 또한 변화시켜 실무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을 임명함으로써 그들의 지식이 공간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도시를 조성하냐는 문제에 앞서 도시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더 잘 설명하는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는 궁극적으로 도시 계획이 사회과학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후퇴를 겪을 때 이에 대처하는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짐 코너의 스태튼 섬 프레쉬킬스 매립지 필드작업 공모전 우승작입니다. 조경학적 어바니즘에 대한 중요한 주장은 조경학에 사용되는 자재들이 공기, 물, 그리고 토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계속되는데요. 그 개연성이나 사례 및 여기에 사용되는 과학의 수준은 같이 토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작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음 토의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도시 공간의 건설에서 탈피하여 영향력이나 잠재성을 예측가능한 자연적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는 유형의 작업이 전형적인 것이지요. 흘러가면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1980년대의 다이어그램이나 콜라주의 이미지가 조경건축의 표현법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있지 않고요. 하버드 GSD에서 이안 맥하그나 칼스 다이넷스가 하던 것처럼 디지털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의 조경 표현법은 대개 이중적 상황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한편은 더 많은 정보와 대중과의 교류로 발달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아직까지 디지털 미디어가 감당할 수 있는 차후의 표현법의 패러다임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쉬킬스와 그 외의 공업공간의 운영 및 그 폐기물 청소의 반대편 측면에는 물론 부티크한 버전도 있습니다. 뉴욕 하이라인이 있고요 시카고의 뉴밀레니엄 공원 등이 있습니다. 조경학을 바탕으로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둔 공공장소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경건축가의 지휘 아래 세계적인 건축가와 도시학자, 그리고 도시 계획자로 이루어진 팀이 조경학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조경학적 어바니즘 프로젝트들이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도시설계의 계급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당시 느낀 점은 계획 설계란 궁극적으로 시민이 시장을 뽑으면 시장이 계획 설계 담당자를 정치 관계자로서 임명하고 관료체계와 공직원들이 관련되어 설계를 실행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계획 설계자는 심판이나 브로커, 또는 지역사회의 행동주의자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가 어바니즘의 전달로 발달하는 것이지요. 제가 북아메리카에 대해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뉴욕과 토론토, 그리고 몇몇 다른 전세계적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로버트 디네로의 지역사회의 행동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급진적으로 뒤바뀐 프로세스에서 파생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시장의 사무실과 계획 기관에서 단호하게 반대하던 것이었습니다. 디자인과 예술 문화가 환경적 의식과 결합하여 부양성을 보였을 때 까지 말이죠. 이는 부동산의 개발과 수익성 있는 관련을 가집니다. 이야기를 통해 들으셨거나 직접 방문하셨거나 성공을 직접 보셨을 텐데 결론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전통적인 도시적 방식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이라인의 성공에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 전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성공 후에는 다른 곳에서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니까 더 이상 시도하지 말라는 쪽으로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이죠. 몇 달 전 뉴욕 타임스를 보면 조경학은 도시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신전통주의적 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투자에 비교해 부가된 조세담보의 양을 볼 때도 흥미로운 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굉장히 많은 초기 프로젝트들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다양한 규모가 있고 다양한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북아메리카에서 뉴욕과 토론토가 이와 관련해 가장 흥미로운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복잡하지만 이러한 류의 작업의 실험공간이 되었죠. 이건은 웨스트 8의 거버너스 섬의 계획입니다. 이 측면에서 제 동료이자 친구인 마이클 반 발칸버그와 그의 회사가 맨해튼 시의 가장자리를 계획한 부분도 언급해야겠습니다. 이건 공업적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공적 공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년 개장한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은 이 도시 공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생태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적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토론토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맥하디가 토론토의 둔치에 작업을 하기도 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그의 학생들도 많이 토론토와 그 주변의 설계 기획사들과 보호허가와 관련된 친환경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관리를 비켜간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의 동반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토론토는 지난 5-6년간 둔치를 다시 구성하려는 시도를 했고요. 도시 지역을 대여섯 명의 세계적인 조경 건축가에게 맡기기도 했으며 이 건축가들은 하청계약으로 수준 높은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에게 작업을 위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도시 계획은 최종 작업입니다. 디자인의 경쟁이 사용목적과 기능의 배치, 그리고 도시의 모양에 적용이 되고 그 후 계획자들이 공동체와 시의회와 협의해 이 프로세스가 법에 허용되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이 다른 문화에서도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토론토의 중앙 둔치인데요. 토론토의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였습니다. 두어 년 전에 5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최종적으로 선발하였고요. 5개 팀 중 조경 건축가에 의해 지휘된 단 하나의 팀이 한 작업이 주로 생태학 위주의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팀만이 캐나다 북부의 수력발전을 사용하는 육중한 트롤리 수송 시스템을 공간 안에 배치하여 북아메리카에 있는 것 중 0에서 최저의 탄소를 사용하는 수송 시스템을 가능케 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휘한 팀들은 이 시스템을 목적지인 문화적 장소 바깥으로 빼내었으며 후스가 지휘한 팀만이 이것이 우리 작업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지하수의 수집을 통해 생태학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의 수집은 평범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런 규모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획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디자인 문화를 통해 생태학적 사안들을 다룸으로 후스와 West 8은 성숙한 어바니스트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이제는 토론토 지역구 계획마다 시행되고 있는 그들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친환경적 방호기관을 통해 블록 방식과 건축된 구조에 다다릅니다. 안드레아스가 소위 말하는 '시각적인 생명애'보다 더 중요하고 그린워싱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지역구를 지탱하며 작용하고 있는 생태학적 논리입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거의 천 에이커에 이르는 온타리오 호수공원을 언급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 짐 코너가 필드 작업을 수행했고요. 토론토의 엄청난 인구의 증가에 대응한 큰 레크리에이션 조경 공간이 있습니다. 마이클 반 발칸버그와 그의 회사 및 팀이 돈 강의아래쪽 지역을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동쪽 지역이고요. 토론토의 분수령입니다. 여기 1950년대에 큰 배들이 대호수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운하로 만들어진 돈 강이 있습니다. 강과 항만의 관계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공모전을 우승한 계획에서는 통제되는 물의 양을 세 배로 늘렸고 작동하는 어귀를 만들었습니다.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면 토론토에 유입되는 많은 국제 이민자들에 의한 인구 때문에 3만에서 5만 정도의 새로운 거주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킨 그린버그가 담당 도시 디자이너고요. 완전히 새롭게 엔지니어링 된 습지에서 다양한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지역사회를 위한 기초로써 건축가들은 매우 흥미롭고 친환경적인 건축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 모양에서 시작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의 보고서는 최종 후보자중 한명인 크리스 리드 (그의 회사는 보스톤에 위치한 '스토스'입니다)가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현존하는 것보다 다섯 배의 생태학적 표면적을 생성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론토의 니나마리 리스터와 함께 그들의 프로젝트를 물고기들의 번식공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물고기 종으로 시작하여 이러한 류의 조경 작업을 시사하는 것이며 대개 카리스마있는 거대동물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코요테가 되겠네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물고기들을 위해 성장과 부화를 돕기 위한 보조금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번식공원에서 강과 항만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연구했습니다. 리드와 그의 스토스의 팀은 물고기들이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신자유주의적인 필요는 없단 거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태학적 기능과 발달된 디자인 문화가 서로 잘 통합되었습니다. 도시 디자이너인 브라운+스토리의 조류 벽과 빌딩에 대한 저탄소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 작업의 기본 주장은 조경학 건축이 많은 사람이 부르기를 우리 시대의 어바니스트로써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는 공모전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 분야나 직업이 도시의 구조화에 가장 적절한 지 알아보는데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꽤 성숙하고 중견 단계의 조경학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조경학에 관한 토의에 있어 '양식으로의 회귀'라고 표현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는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간결성과 명료성을 위해 뉴욕과 토론토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매우 빠르게 도시화 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사례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톈진입니다. 톈진은 홍콩 본토의 자매도시입니다. 1970년대 도시로서의 톈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낚시 마을이었고요. 홍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베이징의 정책에 의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지역입니다. 칭하이 항만에 대한 공모전이었고요. 여기 오래된 항만이 보입니다. 9년 되었긴 했는데 거의 황폐해졌습니다. 여기는 필드작업에 의한 중앙 비즈니스 지역구 계획입니다. OMA 2위를 한 채택된 계획입니다. 조안 부스케츠가 3위를 했죠. 이 공모전의 굉장한 점은 각 세 계획의 생태학적 다이어그램이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찰되는 것은 규범적인 실천에 이러한 전략들이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프레임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생태계의 복구와 관련이 있다는 아이디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수백만 명의 거주민들의 주거와 비즈니스, 시민생활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과 레저 활동, 그리고 경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가 이제는 유비쿼터스적이고 본래 통용되던 특징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 흥미로운 유행과 이러한 관습과 관련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롱갱 시티라는 톈진의 지역인데요. 조경학 어바니즘 그룹 AA&런던의 공모전을 우승작 계획입니다. 에바 카스트로와 에드워도 리코의

작품이지요. 지금은 중국내에 사무실이 있고요. 200,000~250,000명을 위한 주거 지역구에서 이런 류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개의 최종 후보 중에 AA 팀만이 기존의 건축 구조의 해석에 꽤 세부적인 분석과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팀들은 문화적 유산이기도 한 기존의 건축 구조들을 삭제했으며 그저 상징적으로 한 블록 정도의 쇼핑센터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AA팀은 런던에서 온 비행기에서 내리며 그들에게는 무엇이 유지되어야 할지에 대한 해석적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프로세스의 관점을 옹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이 공간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전문적인 생태학적 분석을 했으며 조경학 유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적 및 현지의 선례에 기초한 공간적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 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블록의 구조와 기존의 건축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관련된 블록의 치수나 그리브의 방향, 건물의 높이와 일조권, 그리고 밀도와 관련된 햇빛의 방향과 증가 같은 부분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야 도시 디자이너나 설계자의 작품으로 보이죠. 전통적인 어바니스트의 작품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류의 작업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생태학적 언더레이로부터 볼 때 이러한 팀의 방식이 분명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이어그램 또한 흥미로운데요. 연합적 또는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톈진의 계획자들에게는 엑셀 파일로 설명했습니다. 공모전의 요구사항에는 거대한 나무로 이루어진 플렉시글래스 모델이 있는데요, 다른 15개의 최종 팀 모두 도시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 이 요구사항에 맞추어 이 단상보다 큰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이 팀만이 첫 번째 지역구의 첫 번째 블록을 짓자마자 그 모델은 틀리게 될 거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새로운 도시의 생태계의 기능, 프로그램의 변화, 목적을 다루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면서요. 이 팀은 좀 더 튼튼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의 왼편에는 높이 타깃에 대한 시리즈가 있고 오른편에는 밀도 타깃이 있습니다. 밑쪽에는 블록 구조와 유형학에 기초한 코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대화에 반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엔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소외와 인권탄압의 역사, 그리고 환경적 난점을 고려할 때 신진의 도시계획국은 이 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어 약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으며 나중에 원하신다면 더 깊게 토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조경학적 어바니즘에 있어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부류인 것 같습니다. 건축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벌써 12년 전이고 더 이상 전율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도시 디자인과 계획의 관점에서는 자연 시스템과 도시 시스템의 복합성을 모방하고 시현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두 개의 구별된, 그리고 아마 관련성 없지만 접점을 가지는 토의들의 충돌을 통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아이슨멘의 포스트기능주의를 1974년에 읽었을 당시 건축은 자율성, 저작권, 그리고 지연되는 의사결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비평성을 가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1980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생태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연적 세계의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세계가 쉽게 가늠되지 못하는 구별의 엔진으로써 모델화되고 묘사될 수 있다 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접점은 발달된 디자인 문화와 가치에 대한 비판성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친환경적 가치와 도시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시러큐스에 있는 저의 동료 줄리아 저니액은 이를 외관에서 성능으로의 변화로 묘사했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이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토의이고 관습입니다. 지난 십년간의 작품을 설명하며 이 작품들이 이제는 모두 분류되었다는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장하고 사라지는 주기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소 현재 경향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조경학의 탄생 이야기나 신화를 읽어 보면 최소 두 개의 강력하고 뚜렷한 생각 방식이 있습니다. 이안 맥하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조경학은 원초적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초기부터 조경학이 있었고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농사 지으며 정원을 재배하는 내내 조경학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스트 시대에 꽤 지지를 받았던 이 스토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 이것과는 구별되는 스토리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디자인의 세계와, 지리학 및 조경 건축 역사의 지식분야 모두에 폭넓은 동의를 하는 스토리 말이

죠. 새 스토리는 14세기 페인팅과 무대 예술로서의 조경학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경학의 탄생에 관해 데니스 카스그로나 어니스트 검브릭 또는 J.B. 잭슨의 저술을 읽어보면 조경학이 원초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서양 문화에 존재했으며 14세기에 자연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무대를 장식하기 위한 방식으로 등장했다는 설명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자연 세계의 페인팅뿐만 아니라 페인팅이 없는 세계를 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나면서 조경학은 세계를 보는 방식, 즉 주관성의 매체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이의 소유에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카스그로와 그 외의 사람들은 조경학은 잘 정착되고 발달된 두 개의 14세기 상업 경제에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폴리버밸리와 플랜더스 말이죠. 카스그로가 볼 때 이는 우연이 아니며 다른 이들 또한 이는 도시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경학을 통해서만 도시가 있을 수 있고 조경학을 통해서만 노동의 분배가 있고 자본의 과잉, 그리고 여가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더 안심해도 되는지 덜 안심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건 꽤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조경학은 도시의 산물로서 등장합니다. 과잉의 노동, 필요 이상의 자본, 여가 시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말이죠. 이와 관련해 몇 년 전 예일 대학의 크리스토퍼 우드는 서양의 조경학은 현대적 상실의 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바니즘과 상업, 그리고 기술에 의해 인류와 자연과의 원초적인 관계 이후에서에나 등장한 문화적 방식이 붕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파트를 열면서 저는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성과 떨어져서는 조경학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조경학을 필요하게 한 도시적 조건들 없이는 조경학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몇 십년간 지속되어 왔던 이 주장을 확장해 보자면, 저는 신진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곳들을 관찰하는 것 외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에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도 조경학이 현저히 드러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더디거나,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역동성이 없는 곳에서는 아마 좀 더 전통적인 전략들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고려해 볼 때 디트로이트 시가 다른 여러 도시적 조건들과 함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었고 미국에서 4번째로 거대했던 도시가 20세기 초반에는 2백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 20세기 후반에는 750,000명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밑바닥인지조차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그 정점에서 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디트로이트 시의 공간적 조건이 주목할 만하긴 하지만 거의 모든 서양의 공업화된 도시, 특히 북아메리카의 도시들 또한 이와 비교할 만한 공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950년대에서 1990년대로의 전이된 패턴은 더 이상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4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외 지역과 국내 가장 비싼 지역과 같은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디트로이트 시 앞쪽에 위치한 중앙 비즈니스 지역구는 20세기 초반 폭발적인 인구를 잘 수용하였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 많은 건물 구조들의 사라지고 엔터테인먼트 건물이나 풋볼경기장, 그리고 야구 경기장 같은 거대 건축물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건 경제적인 변화인데 자동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디트로이트 시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지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같은 시대의 모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행을 포함해 생활 방식과 생활양식의 유형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저는 디트로이트의 도시 계획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의 도시 계획자들에게 물었죠. '도시의 주요 건축 활동으로써 건물을 제거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을 대체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요. 미시건 대학의 순진한 보조교수진이었던 제가 그들에게 이걸 물으니까 이 보고서를 주더군요. 1989-1990년의 '디트로이트 시의 빈 토지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들은 보드 마커펜와 샌본 화재보험의 지도를 가지고 디트로이트 시를 돌아다니며 버려짐과 붕괴의 정도를 표

시했습니다. 크랜버그의 댄 호프먼은 도시의 표면을 보여주는 이런 류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의 수축, 버려짐, 그리고 붕괴도 서양 전통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관련성을 보입니다. 물론 로마가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겠지요. 두 곳 모두 문화수입이 있고 서양 조경 건축이 어떻게 흡수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로마의 붕괴의 원인을 보면, 천년이 넘도록 로마는 이렇게 호두 안에 위축된 모양으로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우렐리아누스 방벽 내로 현대 시대에는 '디스아비타토(Disabitato)'로 알려진 영토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와서도 이 영토는 무법의 영토로 일컬어졌습니다. '교외 내의 정원'처럼 세분화되고 발달이 가능한 영토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4세기 '디스아비타토'라는 용어의 창조와 그 변화는 꽤 적절한데요. 14세기의 디스아비타토는 공식적으로 도시화되었지만 버려진 반도 내의 영토를 지칭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와서는 구체적인 장소의 명칭이 되었죠. 16세기에 와서는 아우렐리아누스 방벽 내의 한 지역을 손가락으로 짚고는 '이곳이 디스아비타토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재도시화 될 때서야 그렇게 불렸습니다. 새 교황 시기의 바로크식 재개발의 앙트레로서 말이죠. 조경 건축의 생성에 영향을 준 이 버려진 내부 영토의 이야기는 꽤 설득력있습니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저술을 한 사람 중 찰스 스팅거가 있는데요. 그는 도시의 장벽 내에 안전하게 들어온 15세기 중반의 여행가들은 그들이 조금 전에 가로질러 온 시골과 다르지 않은 도시 경관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백만 명이 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었던 아우렐리아누스 방벽은 여전히 도시를 방어했지만 광활한 '디스아비타토'는 정원이나 포도원, 그리고 과수원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내버려진 채 말이죠. 19세기에 와서 리처드 디컨스는 50종 이상의 꽃과 완두콩이 원형 극장 내에 자라는 묘사를 했습니다. 물론 1870년대에 와서 고고학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생물학적 다양성은 말소되었는데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 사학자인 존 딕슨 헌트 작품을 살펴보면 그는 16세기와 17세기의 지도에서 로마를 정원과 경작된 땅의 정교한 혼합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륙지역, 이 농업적 교외의 조경은 도시의 1676년 지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정원이 도시 벽 요새와 방어 시설의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건물과 신전 사이의 열린 공간들을 차지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행가들이 내부 도시 어디에 눈을 두던지 현대적 정원은 더 큰 고전적 조경의 일부로 비춰졌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를 페인팅의 근원과 관련해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페인팅에 근원에 관한 많은 주장이 있지요. 이렇게 볼 때 페인팅의 근원에 관하여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의 빽빽한 숲에 관한 크리스토퍼 우드의 주장 또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많은 스토리라인 중 하나는 클로드 로랭의 작품과 그의 18세기 영국의 조원술에 대한 영향입니다. 여기 보시는 건 아시다시피 유리 위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클로드의 그림이지요. 물론 클로드는 17세기에 활동했으며 1630년대에서 1660년대까지는 굉장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대부분은 교황과 유럽의 엘리트 법정에 대한 우화적인 장면들이죠. 여기서 제가 흥미를 가지는 부분은 클로드가 개발한 평면에서 자세한 부분은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오크나무의 잉크 스케치가 보이시죠? 그가 '디스아비타토'를 여행하며 봤을만한 장면들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자들은 클로드의 작품의 영향을 우화적 그림의 전통보다는 영국에서의 클로드에 작품에 대한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애쉬몰리언 박물관과 같은 곳에서 클로드의 작품은 불규칙하게 수집되었습니다. 최근에 회고 전시회를 열었죠. 지금은 프랑크푸르트로 넘어갔고요. 조경학이 13세기와 14세기에 폴리버밸리와 플랜더스에서 나타났다는 스토리라인이 사실이라면 그림의 장르로써 등장했겠죠. 여행가로써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여행에 가서 조경에 대한 경험을 하거나 풍경을 보면 되었겠죠. 시간이 갈수록 클로드의 페인팅과 그림, 그리고 동판화와 판화는 특정 문화의 이상들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트와 그 외 사람들은 영국 그림과 조원술의 발달은 영국에 있는 로레인의 작품과 컬렉션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앵글로아메리카 전통에서 우리가 19세기 및 18세기를 통해 조경 건축이라고 이해하는 것, 즉 대중 활동으로 등장한 조경 조원술은 앤드류 잭슨 다우닝이 조경 건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옴스투드 또한 조경 건축이라 주장했고요. 이 측면은 새로운 지식 분야와

직업을 개발하기 위해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골이나 농업용 토지의 묘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도시적인 묘사로써 시작합니다.

어바니즘의 유형으로의 조경학에 대한 토의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역사적 선례를 다루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순간들로요. 제 관점으로는 지난 10년에서 12년간 조경학이 앞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한 구조적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은 20세기의 다른 순간들에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저와 다른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조경학과 관련된 현대 도시 계획자들의 작업은 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도시의 잔류물과 버려진 곳들, 그리고 그 전경에 관한 사례를 통해 다시 디트로이트 시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샌본 화재보험의 블랙 바텀 지도입니다. 블록1에서 6까지의 모든 건물은 철거될 것이라고 하네요. 1951년이죠. 파괴된다네요. 복지 국가의 낙수 효과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려 하죠. 도시 계획자들은 이걸 실행했습니다. 흑인 노동자 계층 공동체의 주택을 파괴했죠.

제 벨소린가 봅니다.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주택 재개발을 진행한 디트로이트 시의 도시 계획자들은 흑인 노동자 계층의 주택 6,000여개를 파괴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남동쪽 지역을 지칭하는 블랙 바텀 지역은 강 밑으로 풍부한 롬질의 토양을 보유했습니다. 그 거주민들의 피부 색 때문에 이름 붙혀진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번영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공동체였어요. 엄청난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 공간은 4년간 비어있었습니다. 1955년에 들어서는 정치적인 수치로 조롱을 받았죠. 본 프로젝트는 계획의 부재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수상작이었어요. 그 해 PA 플래닝 상을 수상한 계획이었어요. 엄청난 주택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에는 연방 군인들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로 주택에 대한 접근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실패는 자금의 부족이나 주택 수요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자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의 관계는 현지의 부동산 개발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4년 후 시카고의 개발자 한 명이 디트로이트 시의 도시 계획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당신에게 전화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당신이 나에게 전화를 한다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허버트 그린월드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원형조경학 개발 사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린월드는 아시다시피 시카고 대학 신학교의 학생이었고 개발자가 되어 독일인 미스 반 데어 로에와 함께 북아메리카는 물론 세계적으로 정말 굉장한 모더니즘의 주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린월드는 세 가지 조건 아래 이 일을 도맡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계획을 인종 혼합적이고 계층 혼합적인 공동체로써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디자인 팀과만 일한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로 디자이너에 있어서는 그의 디자이너인 루드비히 힐버자이머와만 일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힐버자이머와 함께 그들은 무슨 방식을 사용해서든지 가장 뛰어난 지속가능한 원형생태학적 공동체의 사례를 만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달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둘러싼 도시와 교외보다 발달한 공동체 말이죠.

힐버자이머는 농업적 어바니즘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던 독일 건축가 및 건축 비평가였습니다. 'City in the Landscape'이라 불리는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20세기 중반의 조경을 통해 도시의 모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밀도를 낮추고 수평적으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경학이라는 매체의 주장을 통해 말이죠.

곧 제가 결론에서 언급할 사안은 이것이 제가 학생시절 보았던 단 하나의 힐버자이머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소위 모더니즘의 실패를 표현하며 저희에게 깊게 각인되었던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알지 못한 것은

이것이 1920년대 초반의 작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29년대부터 힐버자이머 자신이 논박에 나섰습니다. 독일에서 저술과 그의 작품들을 통해 말이죠. 1929년 그는 이 작품이 메트로폴리스가 아닌 네크로폴리스, 즉 죽음의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와서 그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수평적 조경 카펫에 무성하게 들어선 혼합된 주택입니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의 그 무명의 대학에서 잠깐 동안의 장난질이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허드넛이 그로피우스와 대화하기 전 최종 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포함되어 있었죠. 학문적 저명성을 고려할 때 아마 미스가 그 명단의 꼭대기에 있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1937년 허드넛이 미스에게 새로운 디자인 대학원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는 기쁘게 수락하겠지만 많은 후보자중 하나로 평가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허드넛은 '여기는 하버드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로피우스가 임명 되었고 하버드는 꽤 뚜렷한 전통적 어바니즘 및 조경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힐브스와 미스, 피터 한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시골 한가운데 있는 대학에 오게 되었고 이러한 학문적 전념을 통해 1944년 출판을 준비해 1949년 'The New Regional Pattern'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힐브스는 많은 사랑을 받은 선생이었고 힐브스의 날이라고 불린 그의 생일은 매년 축제날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독일 식당에서 축제를 했죠. 그는 또한 선견지명적이면서도 수사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발터 크리스탈러와 그의 중심지이론을 잘 알고 있었고 앵글로와 색슨 전통에 선례를 두는 세틀먼트 유닛의 개념에도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통과 환경이 조화할 수 있는 어바니즘의 유형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원형생태학적 어바니즘 말이죠. 물론 그는 원자력시대에 관한 작업에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도를 넘었던 적도 있었죠. 성이 월드하임인 사람이 실험실 가운을 입고 독일 도시 계획자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주고 싶네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공동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에서 많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를 더 큰 부류의 냉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모더니즘적 도시설계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죠 '기다려봐. 우리의 열망이 사회적 정의와 건강한 환경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려지진 않았을까?' 이것은 어바니스트로서의 제 경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와 건축을 선택하면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및 환경적 요소들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을 포기해야겠지요. 그와 동시에 최근 10년에서 15년간 경향을 보면 발달된 문화로의 접근보다는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에 전념하여 도시를 도덕적 기준으로 볼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죠. 이것이 힐버자이머의 작업의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라파엣 공원이라고 알려졌는데 자세하게 따져보면 사회적 정의, 환경의 상태, 그리고 문화적 발달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 교차로이지요. 이것이 신전통주의의 지지자들에 대한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기다려봐. 더 앞서 나가기 전에 이 순간을 잠깐 뒤돌아보고 어떤 측면을 구조해 낼 수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지요.

'The New Regional Pattern'은 1949년에 출간되었는데 1944년에 이미 그림과 글들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출판이 보류되었죠. 힐버자이머는 책에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물론 그의 학생이 그린 것이지요. 그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부탁할 때가 있었는데 수시로 그림을 그려준 학생들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에는 사연이 있겠지요. 여기서 그는 디트로이트 시 근처 남동쪽 미시건 모퉁이 지역 재검토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그가 디트로이트 시 내의 땅을 봐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기 10년 전입니다. 당연히 그는 여기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상승과 함께 디트로이트의 인구가 급증했지만 시의 성장을 지휘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장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따라서 도시의 구조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교통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

니라고 말이죠. 그를 인용하면 도시의 '구조적 변화'만이 도시가 필요로 하는 질서를 불러 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미스와 힐브스, 그리고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고 적절한 비율과 관계를 가지는 아우구스티누스적 방식 말입니다. 힐버자이머는 19세기와 20세기 초기 도시의 상태로 인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반의 사회주의적 주장에 의해 설득되었습니다. 힐브스와 함께 공부해 그와 친분이 있었던 필리스 램버르트는 그의 작품에는 기본적인 '공정성'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양빛이나 토지, 공기 또는 물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과 동등성 말입니다. 그는 계획에 대한 비관료적 접근법에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태학적... 오늘날 도시적 양식에 대한 생태학적 동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실제로 미스는 힐브스의 작품을 본 후 조지 댄포드에게 힐브스의 작품의 중요성이 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의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미스는 그의 생애 후기에 '언젠가는 그의 작품의 중요성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라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에너지의 보존에 대한 염려, 햇빛의 방향, 및 환경적 통제와 같은 것들은 힐브스의 작품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진 사안들이었습니다. 편지들과 통신문들을 읽어 보면 그러한 제안들이 북아메리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스와 힐브스의 좌절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헤드릭 블레싱 사진관이 찍은 그 모델의 사진 몽타주입니다. 놀라운 점은 힐브스가 세 번이나 위원회에서 사임하려는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세 번 모두 미스와 콜드웰에 의해 계속 머무르도록 설득당했지만요. 또한 그의 디트로이트 시에서의 계획이 최종 승인된 이유는 부동표를 보유한 사람이 그의 IIT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시나리오였지요. 독일 도시의 조경인데요. 이곳에 여태껏 거주하던 인구의 절반을 수용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6,000명의 본 거주민이 3,000명의 거주자로 대체되는 것이죠. 제가 라파엣 공원에 대해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운 것들의 거의 모두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북아메리카에 본 것 중 여러 인종, 여러 계층, 그리고 공공 지원 주택이 모여 있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여기에 관한 다른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은 이곳이 더 우세한 내러티브로 대체되어 역사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것이죠. 미스의 도미노입니다. 유명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획에서는 힐브스가 공정성과 균등성에 입각해 햇빛의 방향을 고려하여 그의 모든 유닛을 동서로 배열했습니다. 하지점과 동지점에 위치한 모든 거실에 균등하게 4시간의 햇빛을 쐬게 하자는 것이었지요. 당연히 미스는 '힐브스 나는 내 침실에 햇빛이 들어오는걸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며 절반의 유닛을 90도 회전하여 헬리콥터 도미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교외에 대한 대안으로써 근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기반을 두어 만든 디자인입니다. 도시를 떠나는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요. 학교 선생, 소방대원, 판사, 공업 엔지니어, 그리고 몇몇 건축가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자동차들은 작았고 도로와 잔디밭 사이는 1m 정도의 공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힐버자이머, 콜드웰, 및 미스가 아이들이 차도를 건널 필요 없이 뛰놀거나 학교에 통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공간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은 이걸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30년에서 40년간 이 공간에 적용된 사회과학은 굉장합니다. 좀 더 많은 환경적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현존하는 구체적인 관찰 사례들은 꽤 뛰어난 설득력을 가집니다. 1967년 이 수영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여러 인종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시기 디트로이트 시는 사실상 불에 휩싸여 있었는데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부풀린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도시 예술의 원인이 되는 지식 분야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차이와 이러한 류의 작업을 대체한 놓은 내러티브의 엄청난 성공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네요. 이것은 헤드릭 블레싱 사진관의 1956년, 1957년 사진입니다. 이건 조르디 버나도의 1999년 2001년 사진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건축학적 특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외 이 곳의 중요성이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미스의 빌딩 컬렉션 중 가장 큰 공간입니다. 30개의 빌딩이 있죠. 그러나 이곳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및 문화적 의견이 건축과만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교류와 도시 생활이 울타리나 경호원, 또는 게이트가 없이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달리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경학에 의해 구조화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지요. 이와 관련해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 대서양 양쪽의 영어권 국가들에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어바니즘과 도시의 모양에 관한 토론의 영향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 프로젝트는 대중미디어에서 매우 자세히 묘사되고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 중 하나는 디트로이트 신문이 디자이너를 마일스 반 데어 로에라고 부른 건데요. 이 시기에는 미스가 그 당시 자신의 문화적 명성을 즐겨 했던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가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유명인사지요. 또한 그는 당시 그의 경쟁자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교차로 중 벤 다이어그램의 공간이 괜찮은 공간이지요. 이것만이 이걸 해석하는 단 한가지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는 물론 부동산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고 발달에 대한 주장 없이는 매우 다른 공간이 됩니다. 전문미디어에서도 다루어졌는데요. 이 기사는 디트로이트의 혼잡한 다운타운을 둘러싸는 도시적 머크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편견적인 기사였고 그 당시에 만연하던 인종주의를 띄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 중 하나인데 1950년대 후반의 기사입니다. '다운타운의 여섯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생과 순회 재판사, 자동차 산업 종사자와 같은 여러 인종과 여러 계층의 가족 대한 인터뷰 컬렉션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거주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부는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있고 일부는 시가에 임차를 했으며 일부는 보조금을 조금 받았고 다른 이들은 완전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사회과학은 신발과 안경 또는 옷 입는 방식과 같은 풍습을 통해 계층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외 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백인이고 도심 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는 여태까지 사용되었던 계량법 중 인종, 계층, 성별, 민족성 등 측면에서 가장 큰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모두 적용했다는 점 외에 라파엣 공원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완전히 좌파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것입니다. 힐버자이머는 헌신적인 사회주의자였는데 유럽에서와 비교해 북아메리카에는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과 동의하거나 어바니즘의 상태에 관한 그의 신념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여기 이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평가들 중 캐나다의 건축가 시블 모홀리내쉬는 한 작품을 '슬럼가의 빌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라파엣 공원을 문제들을 보여주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교훈들을 가르쳐주는 시험 사례라고 묘사했습니다. 건축학적 저널의 병적인 습관인 아부적인 칭찬으로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은 젊은 종사자 세대가 필요로 하는 생각하고 배우는 기회를 박탈하게 합니다. 라파엣 공원 정도가 제공하는 값비싼 교훈은 최소 무료 교육의 기회정도는 제공해야겠지요.

물론 미국에서 모홀리내쉬와 미스의 관점은 서로에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로슬로가 사용한 신바우하우스라는 용어와 그의 공간의 성격으로의 격하에 대한 점과 같이 말이지요. 여기서 그 역사를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모홀리내쉬의 작품은 구좌파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신념을 버리고 소득이 다른 자들과 혼합시킬 수 있지? 공공주택을 사용했었어야 했어,' 이런 생각을 하던 이들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포리는 힐버자이머의 대부분의 작품들에 경의를 표했지만 한 개의 건축 프로젝트만큼은 좋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포리에게 독일 이민자들의 엄청난 무관심은 라파엣 공원과 같은 투기적 작업의 진행에 있어 그들이 쉬운 먹이가 되도록 노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혼합된 인종과 혼합된 계층을 지지하는 극좌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어떤 이유에선가 이 프로젝

트는 사회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구좌파의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공격을 했고 그 외에도 케네스 프램튼이나 스미슨과 같이 조금 더 합리적인 위치에서 비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앨리슨 피터 스미슨은 라파엣 공원을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프램튼은 공원이 주택이나 주차와 비교할 때 공원이 특별히 무언가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낯설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1966년 런던에서 온 찰스 젠크스와 조지 베어드에게 있어 무엇이 우세한 내러티브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젠크스는 아직 ABD도 아니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미스의 문제점'이라는 이 기사를 씁니다. 건축가 미스의 세계적인 문화적 작품들이 주류가 아닌 2류로 여겨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혼동과 화장실 환기구에 대한 실수 등의 이유로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젠크스만큼의 무모함이나 침착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면서 미스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비평가들에게 있어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은 힐버자이머였습니다. 수많은 비평가들이 모더니즘의 실패를 대변하는 건축의 이미지를 가지고 힐버자이머를 공격했습니다. 미스와 그의 학설 그리고 그의 우세에 대한 공격의 대용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여기 제 친구 1977년 조지 베어드가 굴과 양고기를 먹으며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현재 평판은 오늘날 힐버자이머 다음으로 가장 유행을 따르지 못하는 모던 건축가라고 주장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젠크스와 베어드와 함께 힐브스가 유행을 따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미스나 힐브스 또는 그들의 개발팀 중 아무도 유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1970년대 런던 베드포드 광장과 그 외의 곳에 관해 이뤄진 주류의 토의는 저 자신의 교육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우세한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0년대 조셉 릭워드는 뒤돌아보면 힐버자이머의 성공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황폐하고 어두우며 위협적인 그림은 길거리 없는 도시를 예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나쁘게 말이죠. 그의 성공은 가장 낯선 류의 사회학적 성공이었습니다. 또 1980년대 우리 친구 스탠리 타이거맨은 미스의 건축 작품과 그의 참된 겸손은 이길 수 없는 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그의 고리타분한 조수 힐버자이머의 저술들에 의해 계속해서 지지되었을 때 말이죠. 스탠리는 불쌍한 힐버자이머의 이름의 철자를 계속해서 잘못 썼습니다. 제가 언급한 비평가 중 최소 대여섯 명이 그의 이름을 잘못 쓰며 모더니즘의 실패라고 굳혀진 개념을 공격하기 위해 힐버자이머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마이어와 힐버자이머에 관한 K. 마이클 헤이스의 논문이 저술된 시기와 3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이와 관련한 힐버스와 그 어바니즘의 매체로써의 조경학의 관계의 만회는 또 다른 이야깃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무려 한두 세대의 어바니스트들이 한쪽에는 디자인 문화, 다른 한쪽에는 환경 및 사회적 전념이 있을 때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요? 물론 이는 1968년 이후 직종이 매우 급진적으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누렸던 지식분야적 위신이 추락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이 내러티브에서 탈피하기 위해 사용된 내러티브, 즉 현대적 건술이 도시의 실패를 낳았다는 믿음에 관한 내러티브의 성공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조경학 또한 이 공식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수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모더니스트 계획들에 관한 저술을 읽어보면 조경학은 꽤 오랜 시간동안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매체로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이 강의를 "처음엔 유명했다가 안 유명해질" 강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군요. 나중에 다시 강연하러 돌아와 주시겠지요?

그럴 수도 있죠. 오래 기다려 주신다면 말이죠.

오래 기다려 준다면 말이죠. 오늘 강연에 대해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좋겠군요. 에드워도. 에드워도는 의지할만한 친구죠. 질문을 해봐요 에드워도. 짧게 하세요.

그리고 쉽게요.

조경학적 어바니즘에 대한 지식분야의 도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분야의 성공에 대해 잘 말해주셨는데 이 분야의 학문적 단계에서의 도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 분야의 경기가 좋진 않죠. 최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지식 분야의 변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관례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위에 대한 명명법이나 전문라이센스와 같은 것은 계속 있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식 분야적 자격에 대한 흥미로운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의의 한편은 서로 다른 계층의 평준화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개 건축에서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 생계와 지위를 유지한 조경 건축가들은 경제적 구조로 지탱되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경학은 도시의 일부 문화적 및 경제적 상태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경제적으로 가작 취약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스토리라인이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말입니다. 또 다른 취약점은 우리 분야의 상대적 반감기입니다. 건축의 최상위 계층에서는 18달 이내에 새로운 디자인을 들고 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해하긴 합니다. 그걸 일축하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문화의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지식 분야들이 이 많은 것들을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프로젝트의 목적이 앞장서서 아방가르드적 또는 비판적 건축술, 그리고 그 도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 그 건축술이 다시 너무 멀리 나가 버리거나 그 자신의 구조물 안에 너무 깊이 파묻혀 버린다면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 분야의 경제적 토대와 분야 간의 이음대, 이 두 가지가 이 분야가 가진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잠시 기다려 주세요,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예일에 다시 오셔서 파워풀한 강연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시성이 없는 조경학을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경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형의 표현법이 없이는 조경학을 생각할 수 없다는 하위 주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과 조경학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말이죠. 또한 당신의 초기 표현법의 방법에 대한 묘사는 더 나아가 대지미술이나 프로세스나 역사에 관심을 두는 스미슨의 건축술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스미슨의 표현법, 다이어그램, 및 영상들이 이후 세대의 조경학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잠시 콜라주에 대해 불만스러운 태도로 이야기하셨던 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전율이 오늘날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쩌면 디지털 표현법이 그러한 변형 효과를 제공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들은 당신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기를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하나 또는 다수의 표현적 프로그램 없이는 조경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와 목적에 관한 복합적 경제에 달려 있지요. 조경학이 다양한 역사적 순간들에 있어 전면에 모습을 드러나는 시기는 대개 새로운 표현법적 패러다임이 생성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표현법적 패러다임이 조경학을 우위로 이끌어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변증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당신이 198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건축가들에 의해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영향이 조경학의 관점에서 재조명되는 것을 본다면 꽤 파워풀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생태학과 이 표현법적 프로그램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런 비유는 자가적으로 고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향으로 가득 찬 세상, 이러한 클리셰의 복제품으로 가득찬 세상을 보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는 지식 분야의 관점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학 건축이 잠시 동안 디자인 문화에서 멀리 떨어져 건축술과 도시 디자인 및 계획과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이것이 항상 유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지식 분야와 정체성을 보호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GSD에서 최근 흥미를 끌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어떠한 측면이 조경 건축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 시리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 준비된 강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잠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맥하그가 필라델피아에서 초산염을 가지고 아날로그 오버레이를 진행하고 있을 동안 하버드 지하층의 기념관에 있는 사람들은 GIS를 발명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도에 포드재단에서 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질적으로 컴퓨터 맵핑을 한 것입니다. 계획가들과 생태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토리라인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2년 반 전에 제가 학부에 도착했을 때에는 컴퓨터와 스튜디오는 거의 금기시 되어 디지털에 관한 강의는 하나뿐인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고, 좀 더 흥미로운 측면으로 볼 때는 이들이 그저 목적론적으로 디지털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조경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근 10년간 개발된 일부 도구들이 꽤 흥미로운 교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자 신문에 나온 마이클 키멀멘의 기사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모더니즘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부당한지를 살펴보며 이러한 공공주택에 관한 대책이 알맞은 재정과 방안으로 성공하였는지 첼시와 뉴욕의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하고 있는 멋진 복구 프로젝트가 한편으로는 건축술이 아니라 규제와 재정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가치를 약화시지는 않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첼시는 매우 적은 디자인을 보이는데 같은 사회적 및 정치적 공감대를 가진 당신은 어떻게...이 기사를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못 읽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신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길 바랍니다. 첼시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디자인에 관한 토의 또는 조경학과 디자인에 비추어 본 건물에 관한 토의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일 아침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쪽까지는 하루 지나야 신문이 도착합니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로 이사하면서 뉴욕타임스를 계속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내심 기뻤습니다. 그리 먼 건 아니에요.

세관의 검사를 통과하긴 해야죠.

하하 그렇군요. 적절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세인트 제인, 조지, 찰스 제인스,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탐 울프로 인해 건축이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가끔 실수를 했지요. 그게 이제는 공식화 되었네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자인이나 건축, 그리고 도시 계획을 통해 사회적 및 환경적 난점들을 다루려는 열망은 이 질문에 있어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에 미스와 관련되는 가치와 속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반면의 분리나 제가 설명한 도미노의 회전과 같은 것들이 대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건축학적 문화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테지요. 커튼월은 환상적입니다. 믿기지 않아요. 자축할 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및 환경적 혜택은 이러한 것에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의 가치에 누적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명한 건축물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디자인 때문에 일반적은 시가보다 적게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건축에 중점을 두기에 앞서 잠시 뒤로 물러서서 공간적 구조와 이를 지탱하는 공간적 구조의 개념을 다루고 싶습니다. 밀도를 반으로 줄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지요. 물론 디트로이트 시의 인구가 반으로 줄고 거기에서 더 준 것은 역사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힐브스는 근본적으로 그 시의 인구가 흩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지만 그는 헨리 포드를 인용해 시의 인구가 적어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디자인이 이 현상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이용해 인구를 이 현상의 영향으로부터 격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면에서 힐브스의 자본에 관한 관점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향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디자인을 저항이 아니라 격리나 배양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더 큰 구조적 힘과 흐름을 보기 원했습니다. 물론 관리나 개발을 담당하는 장소의 유지 -특히 건설 자재를 생각할 때 말이죠- 또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깃거리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계층의 혼합을 나타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에 상주하려 하지요. 통계적으로도 약간 건축학적 빈민가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카부지언 프로젝트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거기에 사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곳은 명백히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건축학적 측면 이외에도 중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고 그 후에 다이애나가 말하도록 하지요.

외관에서 표현법으로의 변화에 대한 발상을 언급하셨는데요. 조경학적 어바니즘에 대한 꽤나 비판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의 강조로부터 생태학적 기능을 갖춘 것으로의 변화에 대한 관념 말이죠. 조경 건축에서는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말했듯이 역사가 앞으로 돌려져 미학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GSD에 있을 때 조지 하그리브스의 관점과 더 역사적이고 최근의 관점이 서로 맞부딪쳤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학적 또는 사회생태학적인 요소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야들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여야 할까요? 저는 표현법의 역할에 대한 딜레마, 즉 이 표현법이 실제로 다른 관점에 비해 더 많은 생태학적 기능이나 역할을 표현하는지를 넘어서는 다음 파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적 생태학자의 관점과 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난점의 일부는 과학자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도시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어쩌면 디자이너들은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개념을 직접 상정한다는데 있어서 과학자들보다 앞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과학자들이 과학을 디자인으로 옮기며 도시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어 년 전에 한 컨퍼런스에 갔는데 오늘날 하는 것처럼 이틀 정도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할애하고 하루 정도는 생태학자들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제가 참석한 강연은 첫째 날부터 꽤 진지한 과학자들이 있었고 각자 그들의 과학을 발표했습니다. 몇 개를 살펴보니 대략 거의 모든 논문의 결론은 '우리는 연구를 위해 더 많은 장소와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였습니다. 좋습니다. 둘째 날에는 건축학자들과 도시학자들이 왔는데 그 방에 있던 생태학자들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걸 경험했는데 그 순간 도시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더군요. 건축학자들은 그들의 논문의 끝자락에서 '무엇이든지 주십시오. 두 개의 경험 법칙이라도 주세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에 저는 중국에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지식 분야의 차이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관련된 논쟁적 과학의 심오한 난점들이 제게 명백히 다가왔습니다. 넓게 잡아서 1968년 이후 많은 도시계획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사회기관들을 중심으로 급진적 성향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경학 학교들이 생태학을 중심으로 급진적 성향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식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고 1970년대 건축학이 자율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동안 그에 대한 지식분야와 직업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학 및 생태학에 종사하는 제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의 기본적 패러다임은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의 습득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들의 공간화 말이죠. 이것은 간단한 묘사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관중 여러분이나 특정인의 일생 연구를 공격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얀 메이트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그 난점을 꼽자면 제가 상담한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의 습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보를 해석하고 경제 및 정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정보에 비해 더 적은 도시의 모양의 공간화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적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있어 세대적 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스와 코너 둘 다 '되돌려 놓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훈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전적 생태학의 모델은 인간이 문제인 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스태튼 아일랜드와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을 볼 때 맥하그는 우리가 이 행성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도시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가 묘사한 서양에서는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도시화를 통해 조화시키는 것은 꽤 도전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호스와 코너를 비롯한 디자이너 세대들이 생태학에 관한 지식 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좌절감을 이용하여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상태들을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트레이건이나 포스트대처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는 도시들이 자신만의 기관 디자인 문화의 상승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명백합니다. 제가 해석한 바로는 그들은 디자인적 기관들을 통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 디자인이 과학을 앞설까요? 아마도요.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은 그 대안은 무엇인가와 당신이 언급한 교육학의 시사점에 관한 것입니다. GSD에서 저의 학과는 과학과 디자인 간의 매우 긴 전쟁을 가졌습니다. 2년 전에는 이 전쟁을 종식했지요. 세대적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디자인의 학문에 칼을 긋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의 발효가 현재 통용되는 가치라고 보입니다. 많은 관중에게 있어 호기심 있는 분야이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과학을 사용해 이미 있던 것을 되돌려 놓으려는 이들에게 말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만 받을게요. 아닙니다. 저 친구가 꼭 발표하고 싶어했군요. 좋습니다. 두 개 정도 더 받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답변을 원하는 코멘트 중 하나는 특별히 그 라파예트 프로젝트에서 조경학에 대한 표현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술은 매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공간도 건축술에 의해 매우

잘 정의되었는데 조경학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나무는 자랐지요. 사회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밀도를 제외하고 조경학에 대한 관념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때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독일에서 미스가 조경학을 표현한 사실에 관한 많은 저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법적 측면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논점은...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지요.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답변을 원하는 서술이었습니다.

정중하게 반대해야겠네요. 딱 잘라 말해서 여기에는 조경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꽃피는 전등도 보여드리지 못했고...이해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소 정원도 보여드리지 못했고...조금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쓴 저널 기사에서는 조금 더 세게 나갔었습니다. 그들의 취약점은 재식을 맡았던 조경학 건축 건축가 콜드웰이었습니다. 그가 젠스 젠슨 방식의 초월주의를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건축물이나 재식방법은 매우 현대적인 방식을 띕니다. 조경학의 미학이나 공간적 구조는 매우 파생적인 것입니다. 혁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경학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겠군요. 공원의 구조나 순환의 구조와 같은 공간적 구조는 조경학 재료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빌딩은 카모플라쥬 방식을 띕니다. 조경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녁에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하기 좋아하는 대화의 부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꽤 탄탄한 조경학이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저녁을 보낼 것 같긴 하군요.

여기에 이어서 다른 논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를 통해 당신은 일종의 서버바니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가 현재 어바니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인구밀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뭐 다시 말하지만 어바니즘과 서버바니즘을 분석하는 밤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리에 있는 제 친구 세바스탄 모호는 그의 저술 '조경학 서버바니즘'에서 OMA의 계보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도시 내 하나의 쿤스탈계의 빌딩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전율과 밀도를 시현하는 슈퍼어바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서버바니즘 성격을 띄는 밀란산(Milan-san) 예술, 라발레트나 다른 수평적 것들입니다. 어바니즘과 서버바니즘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도시성의 성질이 매우 중요해 진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문제네요.

다시 말해 이것을 사회적 교류의 밀도를 통해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밀도가 도시 계획 설계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힐브스는 근본적으로 그가 이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구조적인 힘이며 그의 계획을 통해 이러한 것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계획이나 디자인의 역할은 이러한 구조적 힘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이유로 인해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 때 디자인은 이를 방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자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프로젝트나 다른 어떤 사회적 주택 프로그램에게

(예를 들어) 이동성에 대한 추세를 뒤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은 약간 옳지 못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의 집중화가 건축에 의해 커졌다는 귀결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다른 유형의 도시성일까요? 수평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도시적 성질과 시민적 정신, 이러한 집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겠군요.

어쩌면요.

네. 저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성과 집합성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최종 답변을 하기에 좋은 질문일 수도 있겠군요. 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라파예트 공원에 대해서는 분명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지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당신이 평가하는 것에서 미묘한 변화를 겪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모더니즘에 관한 특정한 생각 방식의 부문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경쟁적, 모순적, 개인적이었으며, 우세한 문화 방식으로써 합리성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표현법에 관한 쟁점들을 채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밤 우리가 본 작품들은 뉴욕시를 제외하고는 현대 프로젝트들과 관련 있는 문화에 기초했습니다. 토론토와 중국말이죠. 특히 나머지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은 문화적으로 경쟁이 됩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경 건축의 도전점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하버드가 생각하는 이념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겠죠. 정보의 접근을 통해 파라메트릭을 초월적 합리성을 생성하기 위한 전지적인 기계로 미화하는 것같이 말입니다. 실무에서 당신의 경험 또한 어쩌면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인지하는 데 일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서 멈춰서 다행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번째 질문까지 있었으면 아예 생각이 흐트러졌을 거에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말할 것은 현대성이나 모더니즘에 대한 논점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보단 좀 더 복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제가 불만스러웠던 부분은 비유법이 무비판적으로 반복되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건축 문화나 건축이론을 보면 대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미묘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도시 디자인이나 어바니즘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묘사되는 내러티브를 보면 이는 현저하게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특정한 주장을 계속 시연하는 것 같아요. 딱히 그런 미묘한 변화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도시적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무엇이 시행되어야 하는지의 관계가 합체된 걸로 보입니다. '힐브스의 작품을 봐. 그가 동남부 미시건 전부를 지우려는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가 저술한 것과 참여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성과 관련된 한계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 주장에 대한 다른 약점은 누군가 와서 '어쩌면 당신이 신학교를 나온 적절한 개발자나 한 가지만 건축하는 마르크스주의 도시 계획 설계자와 손잡았거나 독일의...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 다 반듯이 일치되고 하나의 단일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겠죠. 네 뭐 이런 생각이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한번쯤 의구심을 가져 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주택 정책과 개발팀이 나서서 이끌어나가야 했던 사회기관간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공정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60년대와 70년대의 특성을 그 당시 사람들이 묘사할 방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 사안들을 끌어내리는 프로젝트 말이죠. 그들은 이를 타당한 이유 아래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부수적인 피해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 부분의 역사를 아예 없애버리려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버드 파라메트릭 부분 전에 말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대부분의 조경 건축과 겹치는 프로젝트에 관한...

아 맞습니다. 보편론과...네 알겠습니다. 토론토와 텐진을 아직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뉴욕과 토론토를 더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도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자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미디어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두 도시 모두 굉장히 크고 발달된 자본시장이 있으며 주택문제에 대한 압박이 존재합니다. 이 점에서 두 도시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를 인용하여 주택 제도가 매우 발달된 자본시장에 조경 어바니즘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거대한 재개발 구역을 갖추고 예술이나 문화에 흥미를 보이는 녹색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며, 주택 거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만한 거대한 자본이 있는 그런 시장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재료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네오전통주의적 친구들은 미 중부지역에서 일합니다. 밀워키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시장의 크기와 그들이 교외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주택 개발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 때 이는 구조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텐진은 약간 다른 난처한 사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곳과 급격히 성장하는 곳에서 매체가 중요한 데 이 매체가 밀도나 전략의 유형과 같은 사안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업적, 탈공업적, 및 경제적 상태에 대한 구조적 반응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도시와 신도시를 비교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것들의 모습과 관련해 증가하는 정보(파라메트릭 정보이던 아니던)에 관한 무언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난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세대 전의 도시 계획 설계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는 훨씬 더 감당할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멕카디 어젠다의 문제는 지역적 분석을 가지고 지역이나 대도시권 규모에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를 실행할 정치적 또는 경제적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적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의 생태학을 이해하며 이를 프로젝트 적용 범위의 규모에서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들의 규모는 허용된 재개발지역의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제 좌파 친구들과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을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묻겠죠. 그러한 주장은 나중에 기꺼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극좌의 자발적 인간 멸종 사회부터 시작하면... 극좌에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폭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더 좌측으로 가면 문제의 근원인 인간은 이 행성에 거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발적 인간 멸종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태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생태학 모델에서 조금 더 포스트모던하고 경쟁적이며 문제가 있는 모델로 옮겨갔죠. 그러나 이 범위 안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생태학에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뉴욕, 그리고 다른 곳에도 난점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번 싸워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연자를 기진맥진하게 한 것 같군요. 동시에 우리를 자극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계속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